말씀에 목마르고 주린 자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게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바알 앞에 무릎꿇지 않은 7천 명이었다면(왕상 19;18), 남 유다에게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성전 예배와 절기의 회복, 부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유다를 재건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망한 나라 백성으로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전하고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단 9:2).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에 9~10).

최근에 캐나다 내 성경 사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인구의 5%만 매일 성경을 읽고 4%가 한 주 에 몇 차례, 2%가 한 주에 한번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캐나다 내 그리스도인 평균으로 보면 그 수치가, 6%, 6%, 3%로 올라갑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만의 통계는 좀 더 희망적입니다. 22%가 매일 성경을 읽고, 22%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Wycliffe

5/21	5/22	5/23	5/24	5/25	5/26	5/27
대하 14-17	대하 18-20	대하 21-24	대하 25-27	대하 28-30	대하 31-33	대하 34-36

가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6%가 일 주일에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http://www.bibleengagementstudy.ca/)

캐나다 사람들과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을 받은 선교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요? 처음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으로 쓰다듬고, 볼에 부비고,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고 이마에 갖다 댑니다. (http://www.youtube.com/watch? v=yhvranRtlKk)

페이 엣저톤 선교사는 1900년대 초기에 한국 땅에서 선교하다가 건강 상의 이유로 1922년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지 못한 페이 선교사는 나바호 인디언들을 위해 성경번역 사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든든한 한민족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바호 공동체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바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글 읽기를 배웠고, 어떤 이는 밤을 새워 성경을 읽고 때로는 며칠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God Speaks Navaho* by Ethel Emily Wallis, 30~32, 112~116쪽)

일부 한국교회들은 성경통독(아니면 최소한 신약 통독)으로 새 해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향한 이들의 갈증과 허기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성전 헌금 통 바닥에서 찾은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어떡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대하 34~35). 우리 역시 수많은 종교적 행위에 묻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때입니다. 그 말씀을 되찾아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마십시다. 한 절 한 절 곱씹어 먹어봅시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주님,성경활용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리더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각 문화에 맞게 복음이 잘 적용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분들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 그들이 변하고 그들을 통해 공동체가 변하게 하옵소서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성경번역 선교 주간기도제목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Wycliffe

May 21	May 22	May 23	May 24	May 25	May 26	May 27
2Ch 14-17	2Ch 18-20	2Ch 21-24	2Ch 25-27	2Ch 28-30	2Ch 31-33	2 Ch 34-36

Thirst and Hunger for God's Word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eun Kim

God gracefully allowed both Judah and Northern Israel to have their remnants. For Northern Israel, it was the seven thousand who had not bowed down before Baal (1Kings 19:18). But for Judah, it was the exiles who were captured and brought to Babylon. These exiles were those who had experienced the revival, reinstitution of temple worship and festivals through the power of God's word in the time of King Josiah.

Jeremiah prophesied the restoration of Judah through the returned exiles who kept God's Word and handed it down to their descendants even in Babylon; where they lived as the people of a fallen nation. Daniel took this to be true and re-told it (Daniel 9:2). This was how Ezra was able to lead the returned exiles, along with those who were left in Jerusalem, into the revival through God's Word (Ezra 9-10).

The Canadian Bible Forum recently issued its research on Canadians' Bible engagement. According to this research, only 5% of Canadians read the Bible every day; 4% a few times a week and 2% once a week. This number gets a bit better when we look at Christians as a whole; 6% every day, 6% a few times a week, and 3 % once a week. It is more positive with evangelical Christians as 22% of them read the Bible every day, 22% a few times a week and 6% once a week. (http://www.bibleengagementstudy.ca/)

What a contrasting response we have in Canada with those in the field who encountered God's Word for the first time in their history. People would rub the Bible with their hands, cherish it in their bosom, kiss it and place it on their foreheads, with tears glittering in their eyes. (http://www.youtube.com/watch?v=yhvranRtlKk)

Faye Edgerton was a missionary to Korea in the early 1900s but came back to the US in 1922 due to her poor health condition. She was not able to return to Korea but instead started the Navajo Bible translation as she had seen how amazingly Koreans responded to the Bible in their own language when they read it, and how it changed their lives. A strong indigenous church was established as a result. She saw the same thing happen in the Navajo community. People learned how to read, just so that they could read the Bible and read it all through the night, even without eating and drinking for several days. (pp. 30-32, 112-116, *God Speaks Navajo* by Ethel Emily Wallis)

Some Korean churches make it a tradition to read the whole Bible (or at least the New Testament) as the first thing for a new year.

Don't their thirst and hunger for God's Word embarrass us?

Josiah tore his robe when he heard the words of God from the scroll which was found at the bottom of the donation urn. He asked Huldah the prophetess what to do. He declared God's Word to his people and lead them into the Passover festival (2 Chronicles 34-35). Now, let us re-discover God's Word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which has been smothered by many Christian religious practices. Let us drink it like a thirsty people. Let us chew it word by word.

Week 21 Prayer: Lord, thank You for such a great ministry as Scripture Use/Engagement. Pour out your grace on the leaders who serve in this ministry, that people may adapt the gospel to their own culture, and that those who participate may experience the grace and power of your Word to be transformed, and through them, their communities are transformed.